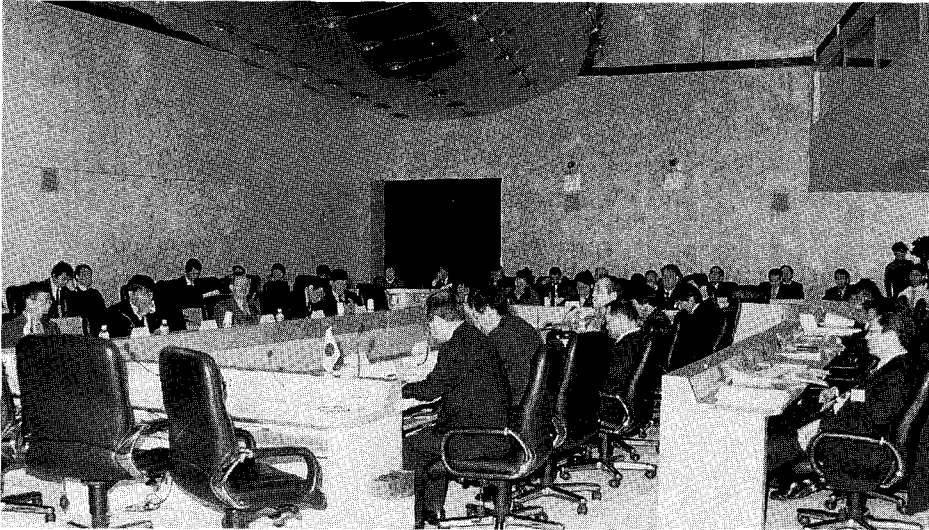


제3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 개최

# 어항어촌 획기적 발전기대

중국서 읍서버로 참가



한국어항협회와 일본 전국어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3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가 지난 3월16일 일본 北九州市에 소재한 北九州國際會議場에서 7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일본측의 사카이스나오(坂井淳) 전국어항협회장을 비롯하여 수산청, 福岡縣, 北九州市 관계관 그리고 廣島대학, 전국어항협회 및 福岡縣어항협회, 어항어촌건설기술연구소, 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佐賀·長崎·熊本·大分·宮崎·鹿兒島·沖繩·山口 등 각 현의 어항협회에서 어항어촌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황금추 본회 부회장(동광건설

발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와함께 이번이 중국측에서는 隋斌 農業部計劃司基本建設處長, 樂曙光 大連水產學院助教授, 陳東 中國水產科學院漁業工程研究所港工研究室主任 등 관계자 3명이 읍서버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地井昭夫 廣島대학 교수의 '동아시아의 해상교류와 어촌·어항문화의 형성'에 대한 기초강연에 이어 한·일·중 3국에서 '수산기반정비의 역사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의제로 각각 발표, 한국측에서는 신영태 자문위원이 우리나라의 어장개발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 어항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소개했다.

한국어항협회는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가 이

제 국제회의로서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이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 어항어촌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한·일 양국의 어항협회가 창구가 되어 민간 단체 업체와의 인적·물적·기술교류 등 모든 부문에서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국제회의는 지난 97년 일본 동경에서 제1회, 9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에 잇따른 연례행사로서 지난해는 일본측의 사정으로 연기되었다.

#### 개 회 사

### 坂井 淳 일본 전국어항협회장

제3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의 개최식을 맞아 주최자로서 인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황금추 한국어항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여섯분, 읍서버로서 중국에서 즈이 처장님을 비롯한 두분, 일본에서 키다 수산청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다섯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일반 참가자들을 모시고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본 회의의 기조 강연은 히로시마 대학의 짜이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근 일본의 어촌 정비에 대한·일본 정부의 시책은 짜이 교수님의 연구에서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수님은 저의 나라에서 어촌 연구의 제1인자이십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어항의 정비가 없이는 어업이나 어촌의 발전, 활성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본 회의는 어항과 어촌의 계획, 건설에 걸치는 여러 분야의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의 이해를 돈독히 하여 보다 좋은 어항어촌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199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한·일측의 상담 끝에 중국측의 참가로 일의대수의 사이가 한 자리에 모인 기념할 만한 회의가 됩니다.

각각의 국가 정세도 다르고 언어의 문제도 있어 회의의 내용은 일반적인 현황 소개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의 정보 교환은 반드시 미래의 나라 만들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에게는 짧은 시간입니다만, 유익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국, 중국에서의 참가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회의의 운영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수산청, 후쿠오카현, 기타큐슈 그리고 그 외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개회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 답 사

### 황금추 한국어항협회 부회장

먼저 이번 제3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를 준비하신 전국어항협회 사카이 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바쁜 국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수산청,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관계관을 비롯한 귀빈과 어항어촌 관계자와 여러분을 모시고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희 일행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데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회의에 이어 오늘 기타큐슈시에서 제3회 회의를 가짐으로써 이 회의는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일 양국 어항협회는 10년이 넘도록 변함

없이 따뜻하고 끈끈한 정으로 우호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한국과 일본의 어항협회는 이상어항어촌 건설이란 공동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목표에 대한 성과를 효율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양국 어항협회의 끊임없는 협조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에는 중국에서 관계자가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산업은 신해양질서와 개방화에 맞서 어장축소, 수입자유화, 자원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민식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업의 근간이며 어촌정주생활권의 핵심 어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항어촌을 종합 개발하여 수산업 발전은 물론 교류·관광·휴양·레저·교육 등의 친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어항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양국 어항협회의 협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공고해져야 할 것이며, 어항기술 교류 역시 형식적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관계로 한 단계 높이 성숙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21세기 어항산업과 수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미래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회의가 어항인의 기술협력과 우호증진은 물론, 중국과의 친선 도모에도 더욱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

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 축 사

### 일본 水産廳長官

제3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가 개최됨에 있어 축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의 나라의 전국어항협회와 한국어항협회가 한·일 어항기술의 교류를 목적으로 상호 번갈아 가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회의는 장래 어업이나 생선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한 공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각국들의 참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중국이 옵서버로서 처음 참가하게 된 것은 이 회의가 발전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 회의가 양국과 관련 깊은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에서 개최됨에 있어, 키타큐슈시를 시작으로 큐슈, 야마구찌 지구의 각 현 어항협회의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의 나라와 한국 그리고 중국은 세계 유수한 어업국이며, 3개국의 밀접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어업자의 안전 확보, 생활수준 향상, 어획생산 진흥을 기반으로 하는 어항, 어장, 어촌의 정비에 대해 3개국 사이에 기술교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은 상호 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항건설 기술의 현황, 문제점, 대응책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상호의 어항건설기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중의 어항건설 기술의 향상과 여러분들의 건투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일본 福岡縣知事

제3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가 97년 동경, 98년 서울에 이어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관계가 밀접한 이곳 키타큐슈시에서 개최된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각지의 먼 곳에서부터 와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함과 함께 사단법인 전국어항협회를 비롯해 회의의 개최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강조할 것도 없이 어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항어촌의 기반정비가 불가결합니다.

또, 본격적인 200해리 시대를 맞아 관계국들의 더 많은 협조를 도모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한·일 양국의 전문가 여러분들을 비롯해 이번 처음으로 중국에서도 옵서버로서 참석하여 어항어촌의 기반 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이 회의가 맺은 성과는 참가국의 상호 이해 증진과 각국의 어항어촌 정비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곳 후쿠오카현은 다른 해역특성을 가진 3개의 해역에 둘러싸여 있어, 각각의 해역에 따라 특색 있는 어업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본 현의 수산업의 현황과 어항어촌의 정비 현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의 금후 눈에 보이는 발전과 여러분들의 건투와 빛나는 활약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일본 北九州市長

오늘의 제3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수산청 관계자 여러분들을 맞아 키타큐슈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연합 해양법 조약에 의한 새로운 해양질서를 바탕으로, 국제적 어업협력에 의한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관관리와 지속적인 이용이 요구되어지는 이 때, 인접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수산관계자가 한 자리에 만나 어항 어촌의 기반 정비와 관련 기술의 향상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호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키타큐슈시는 200km를 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바다의 해산물과 깊은 관계를 갖고 발전해 왔습니다.

시민은 신선하고 맛있는 어패류가 자기가 살고 있는 바다에서 어획되어 식탁에 오르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시정의 중요시책으로서, 이 풍부한 자연을 살린 어업진흥과 다양한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어항 어촌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예로부터 아시아와 큐슈와의 교류의 접점이었다는 역사적인 인식에서 국가 교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회의가 제1회 동경, 제2회 서울을 이어, 이곳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이 대단한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회의의 성공과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빛나는 활약을 기원하며 환영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㉞